

Easter Is Four Days Away: How Prepared Are You?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March 28, 2024

Aloha MPC 'Ohana,

If you've been reading through the Gospel of Matthew during the second half of Lent this year, then perhaps you have read or will read Matthew chapter 25 sometime today.

Matthew 25 contains three parables which Jesus told. The first of the three is the story about some wise and foolish village girls. The wise ones had oil for their lamps and hence were ready to celebrate the coming of a much-anticipated bridegroom when he finally arrived, meanwhile the foolish girls were caught napping and missed out.

The second parable in Matthew 25 tells the story of a rich man who goes away on a long trip and who leaves three of his servants with some bags of gold. One servant gets five bags, he invests them, and ends up making double the amount of wealth entrusted to him. The second servant is given two bags of gold, which he likewise invests and doubles. Meanwhile, the third servant, who only received one bag of gold, just buries the money for safekeeping. So that, when the rich man returns, he's pleased with the first two servants, who showed some initiative, and displeased with the third, who accomplished nothing in his absence.

And the third parable in Matthew 25 is the famous one about the sheep and the goats. In that parable Jesus says that when the Son of Man comes, he will separate people into two groups as one separates sheep from goats. The "sheep" will be rewarded in eternity because they cared for the needs of the less fortunate, while the "goats" will be condemned for not doing so.

Now, admittedly, the foregoing summaries are just the "Reader's Digest Condensed" version of each story. And, at first glance, the three parables might appear to be unrelated. After all, what could wise and foolish village girls, servants with bags of gold, and sheep and goats all possibly have in common?

And yet, on a deeper level, it strikes me that one theme running through all three parables is *preparedness* (or the lack thereof). After all, the wise village girls who had oil for their lamps were *prepared* to welcome the bridegroom, while the foolish girls were not. The two servants who invested their master's gold were *prepared* to receive a reward when their master returned, while the third servant was not. And the sheep obviously were *prepare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in glory, while the goats were not. *Being prepared* does indeed seem to be a common thread in all three parables.

Which actually makes Matthew 25 an apt chapter of the Bible to read today, on Maundy Thursday. Because even though the story of the Last Supper doesn't come until Matthew 26, nonetheless part of what a day like Maundy Thursday is supposed to be about (for that matter, part of what the whole of Holy Week is supposed to be about) is you and me *preparing* ourselves to celebrate Jesus'

resurrection on Easter Sunday.

In fact, this is why churches like ours have special worship services during Holy Week – like tonight’s Maundy Thursday Service and tomorrow night’s Good Friday Service.

We have services like these so that we can replenish “the oil of the Spirit” in our own hearts and so that we can really count the cost which the Son of God bore for us on the cross, in order for our own souls to really be prepared to appreciate what it means to say things like, “Christ has died, Christ has risen, and Christ will come again.”

So, after you read Matthew 25 today, consider coming and worshipping at tonight’s Maundy Thursday Service. And tomorrow, after you read Matthew 26, come back for the Good Friday Service too. Let’s really prepare our hearts, friends, in every way we can for this coming Easter Sunday to be as meaningful, as impactful, and as joyful, as it can possibly be, to the glory of God.

Me ke aloha,  
Pastor Ron

부활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올해 사순절 후반에 마태복음을 읽어오셨다면 아마도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읽었거나 읽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현명하고 어리석은 마을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쓸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하던 신랑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를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낮잠을 자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장거리 여행을 떠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 명의 종에게 금전을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한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투자하여 그에게 맡겨진 재산의 두 배를 벌게 되었습니다.

둘째 종도 금 두 달래를 받았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투자하여 두 배로 늘렸습니다.

한편, 금 한 달란트만 받은 세 번째 종은 그 돈을 보관하기 위해 땅에 묻어두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돌아와서 앞선 두 종은 기뻐하고, 자기가 없는 동안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셋째 종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에 관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불우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았기 때문에 영원히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요약은 각 이야기의 ”리더스 다이제스트 요약” 버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세 비유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마을 소녀와 어리석은 마을 소녀, 금 자루를 든 하인, 양과 염소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세 가지 비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_준비\_ (또는 준비의 부족)라는 점입니다.

결국 등에 기름을 가지고 온 슬기로운 마을 소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_준비가 되어\_ 있었지만, 어리석은 소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금을 투자한 두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 보상을 받을 \_준비가 되어\_ 있었지만, 세 번째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분명히 인자 앞에 영광 중에 설 \_준비가\_ 되어 있었지만 염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_준비한다는 것은\_ 실제로 세 비유 모두에서 공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은 오늘날 성목요일에 읽기에 적합한 성경 장입니다.

비록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목요일과 같은 날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 문제에 있어서는 성주간 전체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절 일요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_준비하고\_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성주간에 오늘 밤의 성목요일 예배와 내일 밤의 성금요일 예배와 같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보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봉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와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읽은 후 오늘 밤 성목요일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마태복음 26장을 읽은 후에 성금요일 예배에도 다시 오세요.

친구 여러분, 이번 부활절 일요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고, 영향력 있고, 기쁨이 넘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나 알로하,  
론 목사